

번호 22-1

제 목	국문	우울증상이 있는 노인의 복합이환(comorbidity) 양상			
	영문	Patterns of comorbidity in older adults with depressive symptomatology			
저 자 및 소 속	국문	이윤환, 최귀숙*, 이연경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영문	Yunhwan Lee, Kwisook Choi*, Yeon Kyung Lee Dept. of Preventive Medicine, Ajou Univ. School of Medicin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			
분 야	보건관리 ( ) 역 학 ( ) 환 경 ( )	발 표 자	일반회원 ( ) 전 공 의 ( )	발표 형식	구 연 ( ) 포스터 ( )
진행 상황	연구완료 ( ), 연구중(0)→ 완료 예정 시기 : 1999 년 12 월				

1. 연구목적

노년기 우울증상은 노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신과적 문제중 하나이다. 특히 노인의 경우 타 연령층 인구집단에 비해 전형적인 형태의 심한 우울증(MDD)의 유병률은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도의 우울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우울증은 노년기에 많이 동반되는 신체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가노인의 만성질환의 복합이환(comorbidity)에 따른 우울증상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복합이환, 우울증상의 양상을 파악하고 둘째, 만성질환의 복합적 이환상태와 우울증상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60세 이상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1994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였다. 표본은 전국 106개 표본조사구로부터 노인가구 1,874가구(2,417명)를 추출하였다. 조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를 방문하여 직접면접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률은 85%로 총 2,058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노인의 우울증 측정에는 CES-D short-form이 사용되었으며 만성질환 유병률과 13종류의 만성질환 조합별 유병률, 복합질환 수 등의 분포를 보았다. 또한 노인의 우울증상 정도와 만성질환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성, 연령을 보정한 상태의 회귀분석과 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상태, 사회적지지 등을 보정한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60세 이상 노인중 13가지 만성질환에 대한 전체 유병률은 84.1%이었으며 2가지 이상을 가진 경우도 54.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절염의 유병률이 56.6%로 가장 높았으며 만성요통(31.2%), 소화기질환(19.8%), 고혈압(19.3%), 심장병(13.5%)의 순이었다. 2가지 만성질환 조합별로는 관절염과 만성요통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전체 노인중 2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절염과 소화기질환(13.0%), 관절염과 고혈압(11.6%), 관절염과 심장병(9.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의 종류와 우울증상 정도와의 관계를 보면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관절염, 요통, 중풍, 골절, 백내장을 지닌 노인의 CES-D 평균점수가 각 질환이 없는 노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우울증상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양상을 보였다.

우울증상에 대한 단계적방법을 통한 회귀분석결과 위의 8가지 질환이 연령과 성을 보정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우울증상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화기질환과 백내장, 심장병과 백내장, 중풍과 요통, 요통과 골절의 질병조합간에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관련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관절염과 심장병, 심장병과 백내장, 요통과 골절 등의 질병별 조합은 우울증상에 대해 상승효과를 보였다. 한편 만성질환의 수도 우울증상과 독립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우울증상의 정도가 심해지는 현상을 보였다.

###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만성질환의 양상과 우울증상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만성질환을 많이 갖고 있는 노인일수록 우울증상이 심할 뿐 아니라 만성질환의 종류와 복합적 이환상태에 따라 우울증상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인의 정신건강이 신체질환의 복합적 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볼 때 노년기 질병예방의 중요성과 복합이환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노인건강증진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감안한 전인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이므로 만성질환과 우울증상의 방향성과 인과관계를 논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향후 노인에 있어 만성질환의 복합적인 이환상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전향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